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방어와 갈등

Defense and Conflict of the Christian Churches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개요

-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그리스도교 일치와 신약성경에 담긴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을 3세기에 걸쳐 펼치고 있는 독립교회들의 공동체(association)이다.
- 이 운동은 미국에서 1800년대 초에, 한국에서는 1924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성낙소 목사에 의해서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에 의해서 1935년 4월 25일 ‘기독교회’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각각 신고 되었다. ‘기독교회’ 대신에 ‘그리스도의교회’라는 명칭은 1946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 이 운동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는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되,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하며, 매사에 사랑으로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다.
- 초기의 교회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완성으로 끝난 16세기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섭리 가운데 환원운동을 도구로 택하시고 자신들을 일군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 이 확신 속에서 발튼 스톤(Barton W. Stone),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월터 스코트(Walter Scott)와 같은 개혁자들은 자신들을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 또는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사도전통)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낙관적인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힘차게 펼쳤다.
-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개혁운동’ 또는 ‘스톤-캠벨운동’은 인도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영미사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는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81),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1908-73),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소설 벤허의 작가 루이스 윌리스(1827-1905), 장학프로그램 입안자 J. 윌리엄 폴브라이트(1905-95), 미국 최대 석유회사 창업자 토마스 W. 필립스(1835-1912), 미국 최대 교회 설립자 랍 러셀, 서울 청계천 빈민구제 사역자 노무라 모토유키, 베스트셀러 저술가 및 설교자 맥스 루케이도(100권이 훨씬 넘는 책이 한글로 번역됨), 미국 초대형 교회 설교자 카일 아이들먼(5권 이상의 책이 한글로 번역됨) 등이 있다.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애국자들이었다.

- 최성진 장로 목회자는 1919년 3월 평북 구성군 남시에서 선언문 및 주의서 500매를 교부하고 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았고, 김요한(홍범) 목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취지서’ 배포자로 검거되어 춘천검찰국 옥중에서조차 만세운동을 전개하여 1919년 6월 12일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며, 일제 말에는 제1대 마이클 셸리와 제2대 존 채이스에 이어서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로 섬기던 중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세 차례나 투옥되었다.

-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김문화 목사도 독립만세사건 또는 항일사건으로 체포되어 여러 차례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또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는 광복군 섭외부장을 지낸 애국지사였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외치곤 하였다. “...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오현팔 목사는 경북 영양에서 항일운동을 펼친 독립 투사였고(광복단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 1919년 10월 소총 50여정을 구입하여 일제와 펼친 총격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 정인소 박사는 민족해방운동으로 인하여 소년시절부터 128회나 검속 투옥을 당하였다. 국회의원(5.16군사정변 48시간 전) 당선,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청주대 대학원 원장, 신생활일보사 이사장, 한국세계어협회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안 방송설교를 하였다.

-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의 동석기 목사는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와 만세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서 1919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

- 이처럼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일제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국가 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전사 장병 묵도, 황국신민서사 낭독,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로의 통합에 결연히 반대하였다가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였고, 급기야 1944년 6월 30일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교소,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 모두 폐지 당하였다.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해방직후 2개 교회밖에 재건되지 않았으나 5년 후인 1950년에 42개, 10년 후인 1955년에 75개, 40년 후인 1985년에 286개로 발전하였으며, 90년대에는 그 숫자가 배가되었다.

-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교회들 운동 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 <내한선교사사전>(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기독교역사사전>(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역사>(쿤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끝림), <그리스도교 신앙>(끝림), <환원운동의 뿌리>(쿤란)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명서

- 순교자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James A. Garfield)는 평생 그리스도(인)의교회(Christian Church)의 교인으로 살다가 별세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다년간 교회에서 설교자로 사역하였다.

- 그는 어떤 숙녀로부터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해줄 개념을 갖게 해

줄 성명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가필드 대통령이 작성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또는 제자들(Disciples)이라고 부릅니다.
- 2.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 3.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교 체계의 근본적인 진리로 간주합니다.
- 4. 우리는 회심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 5.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 6. 우리는 장차 있을 악인들의 형벌과 의인들의 상급을 믿습니다.
- 7. 우리는 신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 8. 우리는 매 주일 주의 만찬의 제정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 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union)을 간구합니다.
- 10.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규칙서(discipline)입니다.
- 11. 우리는 모든 의식들(ordinances)이 사도시대에서처럼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의 ‘환원운동의 원칙’

- 책은 성경만(No Book but the Bible)
- 신조는 그리스도만(No Creed but the Christ)
-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No Name but the Divine)
- 주장은 복음만(Our Plea Only the Gospel)
- 일치의 근거는 성경(신약)으로만(The Basis for Unity the Bible Alone)
- 기본교리에는 통일을(In Essentials Unity)
- 의견에는 자유를(In Opinions Liberty)
- 매사에는 사랑으로(In All Things Charity)



백주년대회 포스터(피츠버그 1909.10.11-19.)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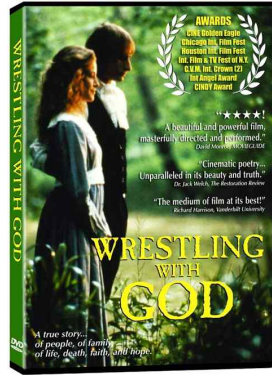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모토
 “일어나 건축하자”(느 2:18)

WRESTLING WITH GOD

영화: 청년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의 하나님과의 씨름

- 번역, 자막, 해설: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Video of 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http://kccs.info/Wrestling%20with%20God_Video_of_the_Early_Life_of_Alexander_Campbell.mp4) (1280x720)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타 교단 환원주의자들과의 관계

- 1830년대에 모르몬교로부터 타격을 입었고(오하이오 주에서 수천 명의 교인을 빼앗김),
- 장로교에 타격을, 침례교에 큰 타격을 입혔다.
- 감리교 하고는 충돌이 없었고, 가톨릭을 배격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은 장로교 목사 존 위커, 윌리엄 맥칼라, 나단 라이스, 가톨릭 주교 존 퍼셀, 무신론자 로버트 오웬과 토론을 펼쳐 명성을 얻었고, 모르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와 침례교 목사 제임스 그레이브스와는 문서논쟁을 격렬하게 펼쳤다.

모르몬교

모르몬교가 창립된 1830년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교회들에서 조셉 스미스의 모르몬교로 넘어간 개혁운동교회들 소속 사역자들

- 알렉산더 캠벨과 조셉 스미스는 둘 다 '환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 알렉산더 캠벨은 그것을 신약교회의 중요한 형태와 구조로 '축소'하였다.
- 반면에 조셉 스미스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추가 성경(모르몬경)을 넣어 그것을 '확대'하였다.

목사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의 참여자들 의사

- 1830년 4월 6일 Fayette, New York에서 창립하였다.
- 모르몬교는 “지상의 교회는 첫 시간에 태어났던 교회여야 하고, 그 교회가 바로 조셉 스미스가 1830년 4월 6일 회복시킨 교회”라고 주장한다.
- 모르몬교의 환원은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의 질서, 특히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하나

님의 계시의 지속성을 주장).

●반면에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의 환원**은 신약성경 교회시대의 질서(의식, 형식, 구조)회복을 뜻한다.

●모르몬교는 캠벨의 개혁과 많은 핵심 신앙과 관행을 공유하였다. 그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지(選擇地)로서의 백인 미국, 원시 그리스도교 복원에 집중하는 중요성, 침수세례의 관행이다. 이로 인해 모르몬교는 캠벨의 개혁운동교회들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는데, 특히 리그돈(Rigdon), 팔리 프렛(Parley Pratt), 올슨 하이드(Orson Hyde)[역자 주: 이 세 명은 1830년까지 캠벨의 개혁교회 목회자들이었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모르몬교를 받아들이고 옹호한 곳에서 그랬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점들도 있었다. 스미스는 자신이 모르몬경을 통해 잃어버린 진리들을 회복하도록 선택된 신성한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고 믿었다.

●나아가 스미스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회복시켰다고 주장하였다. (1) 아론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으로 의식들을 집행할 권한, (2) 사도직을 포함한 교회의 조직, (3)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후기 성도들을 미국 시온으로 모으실 것이라는 가르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4) 하나님의 계시의 지속성 회복. 캠벨은 이 모든 모르몬교의 주장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모르몬교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캠벨이 추구한 “신약성경교회의 복음과 질서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gospel and order of things)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모르몬교의 환원(개혁)의 특징

<https://biblereasons.com/christianity-vs-mormonism>

- 모르몬교는 ‘**영원한 진보**’(eternal progression)라는 교리를 가르침.
- 하나님이 한 때 사람이셨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이 되시려고 진보하셨다**고 가르침.
- 모르몬교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침.
- 모르몬교는 **신들, 천사들, 사람들, 마귀들이 근본적으로 같은 본질에 속해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영원한 진보’(eternal progression)의 다른 위치들에 있을 뿐**이라고 가르침.
- 예수: 선재자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음, **큰 별 콜롬(Kolob**, 이집트 장례문서의 사본인 아브라함서찰에 묘사된 행성,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천체)에서 오신 우리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神性 부정**.
- 삼위일체: 거짓 이교적 개념으로 봄, 삼위일체를 ‘제1회장단’(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개념으로 봄, 하나님을 대표회장(president),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1, 제2 보좌회장(counselor)으로 봄.
- 구원: 보편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뤄짐, **개인구원은 복음에 순종, 곧 믿음, 회개, 침례, 성령 받은 후 의로운 삶을 통해 ‘현세 시련기’(mortal probation)를 성공리에 마침으로 영원한 진보를 이룸**.
- 성령: ‘영원한 진보’(eternal progression)를 통해 선재하신 하나님이 됨, 신성 곧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계심, 성부 성자 성령의 무소부재를 부인하는 모르몬교도(Bruce McConkie)도 있음.

- 사후의 삶: 영생을 잃은 자들은 신들(gods)이 못되고 **영광의 왕국**을 얻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함,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성부 하나님이 진보하여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영원한 진보’를 통해 신성(神性)에 이름.**
- 인간: **전생(前生, a pre-mortal existence)**을 믿음, 모든 사람은 큰 별 **콜롭(Kolob)** 근처의 행성에서 **영적으로 출생.**
- 성경: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모르몬경, 성약 교리, 값진 진주**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그것들로 부터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 명백해짐, **교회의 대표회장의 공적인 가르침과 예언(선지자적) 능력에 있어서 무오류성을 주장.**
- 모르몬교 또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
-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이 **다처와 첩들을 뒀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는 조셉 스미스의 계시**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는 **예수님도 신이 되기 위해서 일부다처주의자여야 한다고 주장.**
- 계시의 지속성을 주장하며 **모르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환원(개혁)의 특징

- 16세기 주요 종교개혁가들 중 루터를 제외한 츠빙글리와 칼뱅과 같은 이들은 환원주의자들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모두 국가종교주의자들 또는 시의회종교 주의자들이었다.
-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종교도 국가종교였다.
-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자국민을 국가종교에 편입시켰다.
-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국가종교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유아세례를 통해서 국가종교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유아세례의 예표 또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게 되었다.
- 루터 - 죄 용서, 죄의식에서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해, 은혜의 복음과 말씀 회복에 주력. **잊혀진 원시교회의 원형과 전통 회복(환원)에 적극 반대.** 반면에 **가톨릭 전통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추구함.
- 츠빙글리 - 원시교회의 질서(신약성경교회의 의식, 형식, 구조)를 **회복(환원)코자 함.** 신약성경의 **침묵을 금지로 봄.** 따라서 악기사용, 성화 및 성상 사용을 금함. 반면에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국교와 교구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못함.** **성인 세례자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함.** 주의 만찬의 횃수를 연 4회로 줄임.
- 루터는 오르간 사용을 지지했지만, 츠빙글리와 칼뱅은 오르간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라며 반대하였다. 성상(아이콘)과 오르간 파괴가 동시에 이뤄졌다.
- 감리교회는 1780년 오르간을 금지시켰고, **1880년** 런던의 City Road Chapel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866년** 스코틀랜드 교회, **1872년** 연합장로교회, **1883년** 자유교회가 각각 오르간을 허락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는 1850년대부터 **악기논쟁**이 불거져 무악기에배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1906년에 갈라져 나갔다.

●하인리히 불링거 -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전수되고 확립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아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말고 잘 유지해야 한다.”며 **환원**을 주장.

●마르틴 부처 - **콘스탄티누스와 국교체제에서 그리스도인 황제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감독되던 시대의 교회(국교)를 회복**하고자 함. 미사를 주의 만찬(Lord's Supper), 사제를 감독(Pastor), 제단을 주의 만찬상(Holy Table)으로 바꿈.

●칼뱅 - 츠빙글리와 루터의 중간쯤에서 믿음과 실천을 성경적 원천, 곧 **원시 그리스도교의 본래적 순수함**으로 되돌려 놓으려 함.

● 가톨릭교회 사제들이었던 루터(1517년)와 츠빙글리(1516년 혹은 1522년)가 각각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함.



마르틴 루터
1483-1546

울리히 츠빙글리
1484-1531

하인리히 불링거
1504-1575

장 칼뱅
1509-1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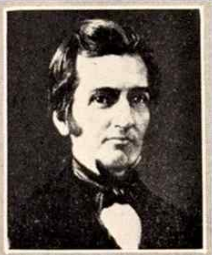
▶루터, 츠빙글리, 칼뱅 등의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가톨릭 전통 반대, 교회의 본래성 추구,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회복, 국교와 교구제도** 등을 추구함.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이 **환원주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에 반대하는 분리주의자들(환원주의자들)을 중형 또는 사형**


으로 다스림.

알렉산더 캠벨과 나단 라이스와의 격렬한 토론


1843 Campbell-Rice Debate,
Campbell's Last Public Debate
Lasted Sixteen Days



N.L. Rice
1843 - 36
Years Old




Main Street Christian Church
Erected, 1841



1843 - 55
Years Old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Also, On the Character of Spiritual
Influence in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and On the Expediency
and Tendency of Ecclesiasti



NATHAN LEWIS RICE, MARCUS TULLIUS
CICERO GOULD, ALEXANDER CAMPBELL, A
EUCLID DRAPER

알렉산더 캠벨 대對 나단 라이스 공개토론이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속기된 공개토론 내용은 책(902쪽)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캠벨은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 토론은 여섯 가지 명제에 집중되었다.
- 처음 네 가지는 신자들의 침수세례가 유일하게 유효한 형태인지,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지, 침(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오직 안수 받은 감독들이나 장로들만이 침(세)례를 집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 나머지 두 가지는 회심과 성화에서 성령의 역할과 신조(creeds)의 합법성이 검토되었다.
- 그러나 이 토론은 진지한 신학적 성경적 토론이었기보다는 인신 공격에 집중된 교파적 토론이었다.
- 라이스와 장로교측에서는 발코니에 ‘웃음위원회’를 배치하는 등 여론조작에 힘을 쏟았고 캠벨과 싸워 “영광스런 승리”를 거뒀다고 선전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장로교 언론은 “약식(sprinkling)이 침수(dipping)를 상대로 영광스럽게 승리했다”고 선언하였다.

장 칼뱅의 환원(개혁)의 특징

- 신약성경교회 회복
- 예배의 단순성, 무악기(On Ps. lxxi. 22; On Ps. lxxxii. 3; On Ps. xcii. 1)
- 그리스도 중심성
- 매주 간소한 주의 만찬 (Institutes 4.10.19)
- 첫 번째는 말씀의 중심성이다. 옛 언약 예배와 새 언약 예배의 차이점은 낡은 것은 복잡하고 새로운 것은 단순하다.
- 두 번째는 예배의 단순성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공적 예배의 단순성은 영광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높인다.
- To return to the simplicity of the early Christians.
- Simply restoring the use of music sanctioned by the Bible and followed by the ancient church.
- the Eucharist with “great simplicity” (Institutes 4.10.19).
- 구약의 악기사용은 율법의 혼련과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On Ps. lxxi. 22).
- 복음의 맑은 빛이 율법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더 단순한 형태로 섬겨야 하므로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명한 것을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이다(On Ps. lxxi. 22).
- 구약 아래 있는 그의 백성과 신약 아래 있는 그의 백성 사이에 차이점이 관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교회가 전성기에 이른 지금, 지나간 경륜의 시대의 그림자를 소개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묻기 위한 것일 뿐이다(On Ps. xcii. 1).

TULIP 교리

-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틀립 교리

- 완전 타락
- 무조건적 선택
- 제한 구속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 성도들의 견인

- 틀립에 더해 칼뱅의 이중예정론과 성령의 조명론은 장로교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가르침을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이다.

***여기까지는 스톤-캠벨운동권(환원운동,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 추구했던 것과 완전 일치.

***그러나 TULIP 교리, 이중예정론, 성령의 조명론에서 상반됨.

장 칼뱅의 <기독교강요>에 따르면 'Only for the Elect'

- 성경은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 계시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복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믿음과 회개는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은 오직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구원은 오직 선택된 자만(Only for the Elect)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선택과 예정된 자가 아니면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다.
 ➢ 국가종교에서 모든 갓난아기들에게 신앙유무와 상관없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그 아기들이 모두 선택된 자들이고 예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인가?

침례교

- 영국 침례교회는 17세기 초에 존 스미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즈(Thomas Helwys)의 분리주의운동으로, 미국 침례교회는 로저 윌리엄즈(Roger Williams)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은 가장 공통점이 많은 침례교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고,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 당대의 침례교 지도자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운동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출판한 책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교회들을 폄훼하고 있는 성경침례교(말씀보존학회)의 주장은 침례교가 19세기 중반에 출판한 비판서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교계는 성경침례교(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침례교는 미국과 한국을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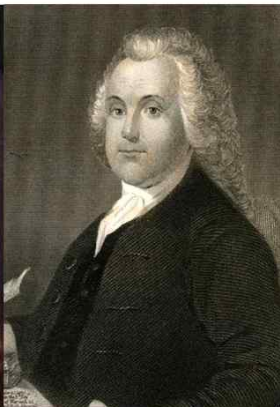
침례교 목회자들



John Smyth(c.1554-c.1612)
전 영국 성공회 사제
1608년 암스테르담으로 망명
일반 침례교회 설립



Thomas Helwys
(c.1575-c.1616)
변호사, 목사, 존 스미스와
함께 일반 침례교회 설립



Roger Williams(c.1603-1683)
1636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식민지 설립. 1638년 미국에
최초 침례교회인 제일 교회 설립



William Kiffin(1616-1701)
런던에 개척한 침례교회에서
52년 목회. 존 스필즈버리와
함께 특수침례교회 설립

침례교의 환원(개혁)의 특징

- ▶ 일반침례교회들 : 존 스미스, 토마스 헬위즈; 일반 속죄설: 신자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적; 침수례; 세속정부에 적대적; 맹세와 무기 사용 반대; 공무원을 회원으로 불인정; 성령의 감동감화에 따른 즉흥적 예배 존중.

▶**특수침례교회들** : 존 스피즈버리(John Spilsbury, 1593-1668), 윌리엄 키핀(William Kiffin, 1616-1701); 제한 속죄설; 신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개교회주의; 유아세례에 반대; 신자 침례 시행; 세속 정부에 우호적; 맹세와 무기 사용 허용; 공무원을 회원으로 인정; 형식적 예배 중시.

▶**침례교세계연맹(BWA, Baptist World Alliance, 1905, 영국)** : 칼뱅주의 쇠퇴, 개방 만찬 시행.

침례교회들에서의 지계석주의와 전승설

●**지계석주의(Landmarkism)**란 말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잠 22:28)에서 유래하였다. 지계석주의자들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침례교의 신앙체제로 받아들였다.

●지계석주의는 **침례교회 전승설(successionism)**에 따라 **침례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왕국과 동일 연속선상에 있고, 모든 세대에 걸쳐 부단한 역사적 전승**(침례교회의 침수례만 인정, 폐쇄 만찬 등)으로 존재해 왔다는 **‘승리주의’(triumphalism)**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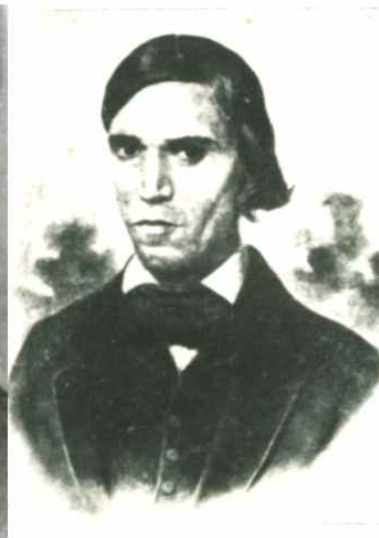
침례교 지계석주의 3인방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James Robinson Graves
1820-1893
목사, 출판인, 토론가
The Tennessee Baptist 발행



제임스 매디슨 펜들턴
James Madison Pendleton
1811-1891
목사, 교육자, 신학자
An Old Landmark Reset 저자



아모스 쿠퍼 데이턴
Amos Cooper Dayton
1813-1865
의사(치과개업), 목사
그레이브스에게 영향 받음

미국 침례교의 대표적 신앙고백들

▶침례교인들은 “**신앙고백의 사람들**”로 불렸지만, 신앙고백이 신조가 되어 성경과 같은 권

위를 갖는 것에 반대하였다.

▶ **필라델피아 신앙고백(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 1742년)** - 영국 특수침례교회들의 제2차 런던신앙고백(1677년)을 계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6년)에 영향을 받아 **칼뱅주의적 신앙**이 지배적이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의 특징들: 성도의 전인, 신앙 양심의 자유(분리주의); 신약성경의 두 가지 의식(ordinances) 곧 침례와 주의 만찬(폐쇄만찬); 만인 사제; 회중정치.

▶ **뉴햄프셔 신앙고백(New Hampshire Confession of Faith, 1833년)** - 자유의지 침례교회; 아르미니우스주의; **온건한 칼뱅주의**; 지계석주의(Landmarkism) 확산에 크게 기여.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1925년)** -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채택; 뉴햄프셔 신앙고백과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진술(1923년)에 기초; **진화론 논쟁**이 발단.

▶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 1963년)** -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채택된 두 번째 신앙고백; **진보신학**이 발단;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1925판을 재조정; **온건한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내포; 지계석주의와 진화론과 자유주의 사상을 경계.

‘BAPTIST’로 본 침례교의 7가지 신앙

참고: 교회진흥원, <침례교 직분자 훈련총서>(요단)

- **B** : Believer's Priesthood (신자의 제사장직/ 萬人사제)
- **A** : Autonomy of the Local Church(자치적 지역교회/ 회중정치)
- **P** : Primacy of Scripture (성경의 절대적 권위)
- **T** : True believers only in the Church(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 **I** : Individual Competency of the Soul(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영혼의 개별 능력)
- **S** :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교회와 국가의 분리)
- **T** : Two Ordinances (두 가지 거룩한 의식)
 - 1)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 2) 기념적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as Memorial)

***침례교와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신자의 침례’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 ‘신자’란 단순히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자를 말하지만, 침례교에서 ‘신자’란 ‘이미 구원 받은 자’ 또는 ‘중생한 성도’를 말한다. 여기서 침례를 베푸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인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지로 갈린다. 따라서 침례교에서 침례 받기 위해서는 회심 체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침례교가 침수례를 베푸는 다섯 가지 목적

- 첫째, **중생한 성도**의 신앙고백
- 둘째,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름
- 넷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
- 다섯째,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함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대체로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중생을 위한 믿음의 행위 혹은 중생의 과정으로 본다. 비교: 수정/임신, 배아, 태아, 출산; 만남, 교제, 고백, 결혼.

➢ 침례교회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이를 일컬어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궁극 구원의 교리'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Eternal Security of Believers)이라고 한다.

➢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지속하는 한(限)에서 '성도의 견인' 혹은 '신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는다

알렉산더 캠벨의 환원(개혁) 활동

● Thomas와 Alexander Campbell 부자가 Brush Run Church를 시작한 날짜는 1811년 6월 16일이었고, 장로교 목사와 아들이었던 그들은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Mathias Luce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 Brush Run Church는 침례교인들의 강권에 따라 1813년 가을에 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 1816년 9월 1일 28세 때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09.12. - 1866.03.04)이 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긴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로 인해서 서서히 침례교와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계시의 점진성을 믿었던 알렉산더는 이 설교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구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알렉산더는 장로교 목사 John Walker의 도전을 받아드려 1820년 6월 19-20일 양일간 오하이오 주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침례에 대해 토론하여 크게 성공하였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1823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Wellsburg에 교회를 세워 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 알렉산더는 1823년 10월 15-21일 켄터키 주 워싱턴에서 장로교 목사 William Latta McCalla(1788-1859)와 침례에 관해 토론하여 또 다시 크게 성공함으로써 캠벨의 개혁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 알렉산더 캠벨은 <크리스천 배티스트>(Christian Baptist, 1823-30년)지를 통해 '옛 질서(직제)들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 캠벨은 1829년 4월 신시내티에서 무신론자 Robert Owen(1771-1858)과의 토론 및 1837년 1월 13-21일 가톨릭교 주교 John Baptist Purcell(1800-1883)과의 토론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 알렉산더 캠벨은 1830년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를 창간하였고, 월터 스코트와 함께 Mahoning Baptist Association를 탈퇴하였으며, 동년에 협의회도 해체 되었다.

●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장로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Nathan L. Rice 목사(박사)를 내 세워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켄터키 주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침례와 회심과 성화에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였다. 당시 알렉산더는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 그리고 1850년대 기간에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 지계석주의자 James Robinson Graves(1820-1893) 및 지계석주의를 반대한 Jeremiah Bell Jeter(1802-1880)와도 발행지를 통해서 격렬하게 논쟁하였다.